

살던 곳에서 평온하게 영위하는 삶... 의료·요양 등 하나로

김제시가 지난달 3월 27일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2026년 통합돌봄 정책의 비전을 '살던 곳에서 평온하게 영위하는 삶'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분절된 복지 전달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기존 서비스가 영역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용자가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며 연계가 부족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정책의 중심을 공급자가 아닌 시민에게 두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했다. 이는 시민 한 사람의 일상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돌봄의 기준을 바꾼다...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살던 곳에서 돌봄'이라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원 연계를 통해 익숙한 생활환경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방식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복지 통합 지원... "서비스를 넘어 삶을 설계하다"

시는 돌봄을 단순한 개별 서비스 제공이 아닌 대상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체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복지 영역을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방문 진료와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이후 식사, 이동, 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가 보완적으로 이어지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지원, 사례관리과



지 함께 지원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동지원 및 재활운동, 식사지원과 같은 김제형 특화서비스는 기존 제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며 대상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동지원은 병원 이용뿐만 아니라 관공서 방문, 장보기, 은행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전반을 지원하고 재활운동은 신체 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한 맞춤형 운동지도도를 제공한다. 더불어, 식사 지원은 균형 잡힌 식사제공과 함께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다.

민관과 함께 만드는 돌봄... '연결이 경쟁력이다'

시는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제

통합돌봄 정책 전면 시행 따라 시설 아닌 일상서 돌봄 기준 전환 의료·일상생활 등 통합 지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비롯 후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 강화 돌봄 수요 전수조사 실시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 나타나 종합적 지역 발전 전략 의미 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기능과 역할을 연결해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정리하

고 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자 한다.

이울러 서비스 제공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관리함으로써 서비스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자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책임성과 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자 한다.

전수조사에서 시작되는 정책... "데이터 기반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 역시 현장에 볼 예정이다. 김제시는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삼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복지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포함하는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한다.

현장에서 나타낸 변화... "돌봄이 삶을 바꾸다"

통합돌봄 정책은 현장에서 대상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재활 운동 지원을 통해 신체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스스로 이동하고 생활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은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장 종사자 역시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역할로 확대되면서 돌봄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제약물 복용지도 서비스는 여러 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복용 방법과 시간,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중복·과다 복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약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울러 식사지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영양 상태 개선과 일상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성과는 통합돌봄 정책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올해는 본사업으로 추진

이처럼 현장에서 확인된 변화는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김제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돌봄 전달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검증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운영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함으로써 김제형 통합돌봄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 한다.

"돌봄이 머무는 도시"... 김제의 미래 전략

시는 앞으로 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내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요양·일상생활 중심 돌봄을 넘어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돌봄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시민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안에서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도 일상과 여가, 사회적 관계까지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김제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안정성을 높이며 나아가 시민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김제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그 변화가 바로 김제가 만들어갈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